

포교원·교육원 10년 집중진단 <상> - 신도등록사업 어디까지 왔나

재적사찰 갖기 뜻 못살려 신도들 '외면'

조계종 포교원과 교육원이 1995년 별원으로 독립해 올 1월로 10년을 맞았다. 그동안 두 원은 조계종의 각종 포교사업과 승가교육 제도화 등에 성과를 이뤄냈지만 유독 신도등록 사업과 강원교육 체계에 대해 서만원은 제대로 손을 대지 못했다.

매년 3만여명 등록해도 갱신을 13% 그쳐 교무금·재교육 부담...발급해택 모색 필요

신필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막상 신도등록에서 부딪치는 문제는 총 신도등록자의 13% 정도만이 다시 교무금(1만원)을 납부하고 신도증을 갱신했을 뿐이라는 빈약한 현실이다. 개종을 하거나 사망 등으로 말소된 신도수를 제하면 2004년 10월 기준 등록신도는 30만7426명에 불과하다.

원래 무료입장이 불가능한 현재는 이 완전히 못한 갱신했을 민원과 등록 및 갱신 포기, 신도증 말소 등으로 이어지는 중요변수로 떠올랐다.

포교원 측은 신도증이 주는 혜택이 약해서 일선 사찰에서 신도증을 대상으로 재납부를 독려할 근거가 미미하다고 진단했다.

1월 7일 해인사에서 열린 본·말사 주지회의에서도 계룡산 및 오대산 등의 일부 사찰에서 그 사찰 신도증이 아닌 전국신도증으로는 무료입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신도증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혜택과 신도들의 인식 미비 이외에도 일선 사찰의 신도등록 소임자들이 수시로 바뀌는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이사율이 20~30%로 높아 연락이 끊기는 경우, 신도등록 프로그램이 어려워 기피하거나, 신도등

록 관련 업무를 귀찮게 생각하는 소임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유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신도증 '조계종도 자강심' 되려면 신도증이 있는 신도와 없는 신도의 위치와 혜택이 확연하게 구분돼야 한다. 신도증이 없으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명확한 기능을 부여하지 않는 한 현행 신도증 발행 행태로 보아 신도증 등록사업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포교원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은 신도교육과 신도증 혜택 증대다. 기본교육 후에도 신도재교육을 일정 기간별로 실시해 종도로서의 자강심을 심어주겠다는 구상이다.

포교원에서는 사찰 신도증과의 결합·불교교육 의뢰기관·불구점 및 서점 등 할인혜택 부여, 종단 차원의 문화행사 할인 이벤트, 인터넷 배너 광고, 신도증 등록을 일선 사찰로 이관하고 중앙에서는 교무금과 명단 관리만 하는 방법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부신한다.

김지연 기자

신도등록 사업의 출발 배경

조계종에서 신도증 발급 사업을 시작한 배경에는 '재적사찰 갖기 운동'이 있다. 불자들에게 소속감을 갖게 하자는 의도에서 재적사찰을 갖고 조계종 신도증을 만들자는 것이 시작이었다.

1000만 불자라고 말해왔던 불교 인구 가운데 조계종 신도등록을 한 신도 신규 누계는 2004년 10월 기준으로 31만4648명, 매해 3만명 정도가 꾸준히 신규 등록을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신도(재)교육에 매진하면 등록비율은 충분히 개

권람료 패스카드'로 전략한 신도증

교무금 재납부율이 13%로 낮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 신도증 발급을 시작했을 때 국립공원 무료입장이라는 '갯밥'이 '조계종도로서의 자강심과 의무'라는 측면보다 더 크게 부각됐다. '갯밥'의 부작용은 신도증을 국립공원 무료입장패스로 전략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그나마 월정사, 백담사, 신흠사, 계룡산 일대 등 일부 국립공

현대불교 2004년 합본집 발간

현대불교신문 2004년 합본집을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간화선 증중을 위한 선원장초청 대법회'를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VCD를 증정합니다.

구입 안내

- ◆ 내용 : 2004년도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454~506호)
◆ 크기 : 신문대판 원형(40cm~55cm)
◆ 방법 : 전화 신청 / 입금확인 후 택배 발송
◆ 가격 : 80,000원 (배송비 무료)
◆ 입금구좌(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 주문 및 문의 전화 : (02)737-0090(직통) / 팩스 (02)737-0697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Table with 2 columns: Contact info and website links. Includes phone numbers, fax, and website URLs for various departments.



대북지원물품 선적식에 참석한 불국사 재무국장 정문 스님(맨 오른쪽) 등이 식용유를 실은 컨테이너차를 배출하고 있다.

北에 식용유 3천만원어치 보내

조계종, 불국사 제공받아

조계종이 조선불교도연맹 산하 조선불연무역회사로 보내는 식용유 선적식이 1월 11일 인천항에서 진행됐다. 이번에 지원한 식용유는 경주 불국사주지 총사가 제공한 3000만원 상당의 컨테이너 1개 분량으로, 12일 인

천-남포간 정기선박편을 통해서 조선불연 무역회사로 전달됐다.

불국사 주지 총사 스님은 "이번 지원은 계기로 불국사와 조불연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금강산 신계사 북원불사도 원만하게 회향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갖겠다"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행사 여비지급조절”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이 영결식이나 진산식 등 불교계 각종 행사시 대중들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여비를 근절하자고 결의했다.

1월 7일 합천 해인사에서 열린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양산 통도사 주지현문 스님은 “영결식 등의 행사 규모가 커짐에 따라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여비 또한 많이 늘어났다”며 “행사를 검소하게 치르고 여비만 분기위 조성을 위해서도 여비지급을 일체 근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총무원장 범상 스님은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부총장 등을 호화스럽게 치르는 것은 맞지 않다. 또 이런 문예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며 “종단 차원에서도 허례허식과 불필요한 경비지출이 근절되도록 적절한 지침과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동국대 정각원장 진원 스님 부총장에는 김병식 교수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현해)는 1월 13일 공개대 회화공학과 김병식 교수를 서울캠퍼스 부총장에 임명했다. 또 정각원장에는 조계종 국제교류위원 진원 스님(인터뷰 14면)을 임명하는 등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

이밖에 서울캠퍼스에서 시기획인사처장 유석천 △대협력처장 겸 건학 100주년기념사업회 부부장 이관제 △기획심사팀장 김윤진(김윤진), 경주캠퍼스에서 △승무원장 서병수, 의료원에서 △의료원장 이석현 △분당한방병원장 김경호 △강남한방병원장 이원철 등의 보직인사도 이뤄졌다.

조용수 기자

“불교 균중병 되세요” 병무청, 금년 4차례 모집

불교 포교의 최일선에서 활약할 균중병을 모집하고 있다.

병무청은 2005년 균중병(사병)을 1월 3~20일, 4월 1~20일, 7월 1~20일, 9월 1~20일 4차례 걸쳐 모집하고 있다. 접수 자격은 불교관련학과 전공 1년 이상 수료자 또는 수계 후 3년 이상 경과자로서 사회복합학과, 정교사, 컴퓨터 관련 자격 취득자를 우대한다.

접수는 병무청 홈페이지(mmaggo.kr)로, 면접은 충남 계룡대 군중감실에서 열린다. 문의:1588-9090

강유신 기자

(재)선학원과 '보광사 사태'의 함수는?

창건주 권한 승계 법적장치 '모호성' 부각

(재)선학원 사찰인 서울 보광사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나 불교계에서는 '예견된 일'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보광사 창건주 정일 스님이 원적까지 전부터 재산승계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이다. 또 불교계 일각에서는 '제2의 보광사'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창건주 권한 승계 문제없나?

선학원 소속 사찰은 분원과 포교원을 포함해 전국 600여개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150~200여 사찰은 명의등록만 선학원에 했을 뿐, 실제 선학원 산하 사찰은 350~400여개다. 이 가운데 공사찰 20여개를 제외하곤 모두 사찰(창건주 승계)이 되고 있는 분원이다.

선학원 정관 제4장에 따르면 사찰의 스님 창건주는 사제상승스님 창건주 직계 1대 제자가 창건주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영구 보장한다. 또 분원관리규정 제8조 3항에 따르면 창건주 권한의 위임은 재단의 확인 하에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단, 유언서상(민법의 유언 요건 구비된 것) 위임상황은 예외로 한다.

여기에서 일종의 상위법인 정관과 하위법인 분원관리규정의 충돌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즉 정관에서는 사찰 스님 창건주는 사제상승을 영구보장 하지만 재단 확인 하에 문서로 이뤄지지 않거나 민법의 유언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유언서로 할 경우 창건주 권한이 위임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광사 사태도 이 부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이와 관련 재단측은 "현종 스님과 정일 스님 문도회측이 서로 창건주 권한 위임 직임을 주장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뿐, 1999년 이사회에서 창건주 권한 위임을 다루기 시작한 이래 모두 이를 인정했다"고 해명했다.

■'제2의 보광사 사태' 발생 가능성은?

보광사 사태가 발생하자 불교계에선 '제2의 보광사 사태'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선학원 산하 사찰들이 대부분 사찰이기 때문에 창건주가 임직하면 권한 승계가 문제점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양측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대두됐다. 사찰은 선학원에 소속돼 있지만 스님은 조계종에 소속돼 있는 이원적 구조가 갈등 조정·통합을 미약하게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보광사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나자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에서 중재에 나섰지만 사찰이 선학원 소속이라는 점 때문에 한계를 안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이와 관련 재단측은 "창건주 권한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 아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단에서는 상호 합의하도록 유도할 뿐 해결의 중심은 당사자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고침 본지 508호 지상 50호에서 '자은 스님'을 '자은 스님'으로 바로잡았습니다.
남은 1947년 자은 스님은 은

전국 전세계 어느곳에서도 일등할 수 있는 교육장소 호남불교전통의식대학 2005년 제7기 신입생 모집

- 지원자격 : 스님,포교사,교입법사, 각 종단을 초월하여 절을 이어갈 후계자(유발자도 가능)
● 과 목 : 법배 상주권공의식, 각배의식, 교양과목
- 안채배 : 각종불공의식, 49재의식, 천도재, 신중작법의식, 각종소, 낭독하는법
- 결채배 : 바라춤, 도량계작법, 다계작법(나비춤), 사물다루는법, 화정(희상곡)
● 과 정 : 2년(4학기) 1년과정(상주권공) / 6개월과정(간단한 불공)
● 수 강 료 : 1학기 6개월 60만원 (각학기당 동일) (비디오 교재 별도)
※비디오, 테이프, 교재는 학교에 비치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학교에 비치), 반명함판 사진3장, 주민등록등본 2통
● 원서마감 : 2005년 2월 28일 월요일 오후 3시
● 입 학 식 : 2005년 3월 9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 강의시간 : 매주 월요일 - 1학년과 1년과정수업(오후 2시 30분 ~ 5시 30분)
매주 수요일 - 2학년(오후 3시 ~ 6시)
각배반 목요일(오후 3시 ~ 5시 30분) - 첫시간 바라춤, 나비춤(90분간)
6개월반 매주 화요일(오후 7시 ~ 오후 9시) - 학비 40만원
● 통신생 출석교육 :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3시부터 ~ 다음 일요일 12시까지

- 전화번호 : (062) 362-8604 / 011-624-8604 / 011-614-8604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 2동 759-14(우 502-242)
■ 학 장 : 해공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이수평가자)
■ 계좌번호 : 농협 / 641010-56-000296 (예금주:노연숙)

호남불교의식대학 합동교육기간 (2005년 1월 28일 ~ 2월 1일 : 4박 5일[1차])

[교육시간 : 오전 8시 30분부터 ~ 오후 6시까지(오전시간 강의, 오후시간 실기교육 위주)]

- 약력 1월 28일 오후 2시 : 입학식 후 시련절차 실기, 대령관복 보소청진인, 저녁시간 : 사물 다루는법 - 북, 태령, 목탁, 요령
1월 29일 8시 30분 : 점안의식, 가사이운식(조소리죽음)
1월 30일 8시 30분 : 상주권공, 지장불공, 관음시식, 상용영반
1월 31일 8시 30분 : 용왕불공 및 방생의식교육, 소창불, 39위 신중작법, 종사영반 종사관공
2월 1일 정월 삼재기도와 신중불공의식 산신기도교육 오후 3시 폐회식
※ 2005년 2차교육예정 : 5월 18일부터 ~ 5월 21일 (3박 4일)
● 준비물 : 가사장삼, 필기도구, 녹음기, 바루, 비디오키, 작은 석문의범 지침 (안전오박사제작 - 못구할시는 본학교로 연락바람)
● 숙식제공포함 교육비 15만원 ● 모든 교육교재는 본대학에 있음(교재비 별도)
● 이번 교육을 받으실 분은 미리 전화주시고 송금요
※ 이번 기회에 진주보석보다 더 중요한 교육을 헛되어 하지 말고 녹음도 하시고, 들어놓으시길 바랍니다.
※ 특히 : 이번 교육을 받으신 분은 본교 입학시 20% 학비 면제

법배(凡唄) 어산(魚山)스님이 되시고자 하신분께 한마디!!

어법하고 의식다운 의식을 배우시려면, 해자공자 해공스님은 19세 분구전에 출가하여 지금까지 염불공부를 하시던중 법배전통의식을 전문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후학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서기 2005년 제7기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법배(천상음악)는 법배성을 타고나야 빨리 배울 수 있고 노력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장스님께선 법배소리를 타고났습니다. 참다운 법배공부를 배우실 분은 꼭 해공스님을 친견하십시오.
지금도 공부를 하시고 계십니다. 방방곡곡에서 우후죽순같이 법배교육장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어산스님을 잘못 만나면 아니 배운것만 못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어산스님이라 하고 영가천도를 하신다면 법배의식인 상주권공의식, 각배의식, 영산의식, 깃소리를 포함하여 약 7~8년 배우고도 약 10년 가까이 다듬어야 어산스님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도 배우지 않고 어산한다고 하면 삼척동자라도 웃을뿐만 아니라 우리 불교 법배법률이 앞날에 크게 우려가 됩니다.
꼭! 호남불교의식대학이나 봉원사 육천법음대학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상좌일동 -